

■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 시행 2년 / 실효성 논란

신고 폭증... "몰랐다" 발뺌엔 속수무책

2017년 6월 이후 총 1만2702건 신고 경찰 업무과중 호소 "고의성 판단 어려움"

제주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고 도망가는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신고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한편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는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 3일부터 올해 7월까지 2

년 1개월간 접수된 주·정차 뺑소니 신고는 1만2702건(2017년 3436건·2018년 6009건·올해 7월 기준 3257건)이다. 법 시행 이후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을 추적하게 되며, 적발시에는 8만~1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교통경찰들은 가목이나 바쁜 상황에서 주·정차 뺑소니까지 떠맡게 됐으며 업무 과중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25.6건으로 전국 평균 19.2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주·정차

뺑소니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블랙박스등을 몇시간씩 분석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는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나면 주·정차 뺑소니 등 또 다른 사건들이 수십건씩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벌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제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정차 뺑소니를 당한 박모(31·여)씨는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 운전자를 찾아 냈지만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태도에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에서도 "가해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확인하는 장면이 없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해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박

씨에게 설명했다.

박씨는 "분명 법이 시행되고 있는 데도 가해운전자가 모른다고 하면 처벌을 피한다"며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비를 받긴 했지만, 처벌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자동차 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났을 때 문콕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보상기준을 바꿨다.

이는 일부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를 당해도 수백만원을 들여 문콕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발생하면서 변경된 것이다. 송은범기자



주행중이던 외제차량 화재로 전소

5일 오전 9시18분쯤 제주도 예월읍 상귀리 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최모(59)씨가 몰던 외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최씨는 차주 김모(40)씨의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탁송하기 위해 제주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승

용구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운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

화재로 차량은 전소되며 5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해경 국제범죄 수사성과 전국 1위

밀입국 알선조직 검거 사례 발표 '눈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고 전국 25개 관·서가 참가한 '상반기 국제범죄 수사활동 성과보고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을 제주도 예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도주한 한국인 M(39)씨와 중국인 알선책 위모(30·여)씨 등 밀입국 알선조직 5명을 끝까지 추적해 올해 4월 일망타진한 사례로 전국 해경관서 관계자들이 참가한 성과보고회에서 1위를 수상했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자 일 자리를 위해 다른지방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첩보수집 활동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주 오름을 배경으로... 레일바이크 체험 5일 제주시 구좌읍 용논이오름 인근 레포츠 체험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름 등 제주의 비경을 감상하며 레일바이크를 즐기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신청 개선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해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되는 증명서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원 입소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해당해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다.

또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상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조상윤기자

4개월 딸 학대 30대 아버지 징역 2년

지법 "죄질 나쁘지만 반성"

4개월 난 딸을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우도면의 한 펜션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4개월 난 딸의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가한 혐의를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딸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 공립 유치원교사 10명 최종 합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제주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5일 발표했다.

제1차시험(교직논술 및 교육과정)과 제2차시험(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안작성, 수업실연)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 인원은 10명이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 시험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과 2차 시험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했다.

최종 합격자는 7~8일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도교육청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표성준기자

내일 검정고시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노형중학교(제1고사장), 서귀포중학교(제2고사장), 제주교도소(제3고사장), 제주소년원(제4고사장), 강모씨 자택(제5고사장)을 포함해 모두 5곳에

서 2019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019년도 검정고시에는 초졸 17명과 중졸 89명, 고졸 338명을 포함해 총 444명이 접수했다.

합격자는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표성준기자

벌초기계판매

◆ 종류 : 전착식, 배부식, 조립식

에초기/Brush Cutter 잔디깎이/Lawn Mower
체인톱/Chain Saw 진정기/Hedge Trimer
송풍기(낙엽흡수)/Blower

남성로터리 ↑ 종합경기장 정문 앞
← 신제주 ● 한성진심외과 광양 →
주경기장 정문 ↓ CU 터미널

한성기계

한성기계

제주지역 ☎ 753-6653, FAX 753-6654

● 직항 전세기 전문여행사 ●

가자 일영투어

T.727-2277

◆ 일반여행업 252호 ◆ 2억원 보증보험가입업

대만/야류/지우펀/스펀/단수이 4일

499,000원~

홍콩/마카오 4일

697,600원~

백두산

수.목.일.토.출발

892,800원~

제주 직항

북경/장가계 897,000원~

상해·주가각 593,300원~

상해-장가계 999,000원~

매일출발

방콕 5일 특가

599,000원~

방콕/치앙마이

799,000원~

말레이시아 관광 4박 5일

제주 직항

쿠알라룸푸르/말라카/게팅 5일 화.목.출발 799,000원~

두나리여행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1,099,000원~

5일 화.목.출발, 6일 월.토.출발

말레이시아 골프 별도문의

제주직항 | 북경 4일

397,800원~

역사탐방+중국음악

서안 진시왕릉 5일/6일

목.일.출발 695,700원~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상시출발 999,000원

정해문의

가자 일영투어 I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전용차량료, 일정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1억원여행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직항 그 외 해외상품 : 사이판, 싱가포르, 무이산하루, 장가계, 허니문, 호주, 시드니 등